

- 주요 뉴스: 미국 9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년래 최고치,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예상
 - ECB, 주요 정책금리 목표치는 시장 예측보다 낮을 가능성
 - 영국 총리, 감세안 수정 고려, 시장 신뢰 회복 등이 목적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, OPEC+의 감산은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 초래할 소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증시 과매도 평가와 영국의 금융불안 완화 기대 등이 영향
 주가 상승[+2.6%], 달러화 약세[-0.8%], 금리 상승[+5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강력한 물가상승 압력 확인에도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의 감세안 조정 기대 등으로 0.9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이 과도했다는 시각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화가치는 0.8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이 배경
 독일은 영국 국채 가격의 급등 등으로 3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30.4원, -0.9원) 포함, 한국 CDS 포함

		10/13일	10/12일	전일대비			10/13일	10/1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69.9	3,577.0	2.6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4%	3.90%	5bp
	유럽	389.15	385.88	0.85%		독일	2.29%	2.31%	-3bp
	중국	3,016.4	3,025.5	-0.30%		영국	4.20%	4.44%	-24bp
	일본	26,237	26,397	-0.60%	CDS 5y	한국	61bp	61bp	0bp
	한국	2,162.9	2,202.5	-1.80%		중국	113bp	110bp	3bp
	달러지수	112.45	113.32	-0.77%	위험 지표	EMBI+	-	477	-
환율	유로화	0.9776	0.9703	0.75%		VIX	31.94	33.57	-4.86%
	엔화	147.12	146.91	-0.14%		WTI유	89.11	87.27	2.11%
	위안화	7.1695	7.1748	0.07%	원자재	구리	344.1	342.5	0.45%
	원화	1,431.3	1,424.9	-0.45%		금	1,666.4	1,673.2	-0.4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9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, 40년래 최고치.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예상

- 9월 소비자물가(CPI)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둔화(8.3%→8.2%),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(0.1%→0.4%). 한편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6.6%로 전월 및 예상치(각각 6.3%, 6.5%) 넘어서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, 월간 상승률은 0.6%로 예상치(0.5%) 상회하며 전월(0.6%) 대비 보합
- 세부적으로는 주거, 보건, 서비스 부문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물가 여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. 특히 주거비는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. 반면 중고차, 의류 등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
- 원자재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개선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. 그 동안 물가상승 모멘텀이 축적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(Comercial Bank의 Bill Adams)
- 9월 CPI 결과의 영향은 12월 FOMC에서 나타날 가능성. 예상보다 높은 CPI 등으로 연준은 12월에도 0.50%p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최종금리가 점도표보다 0.25%p 높게 형성된다는 의미(Bloomberg의 Anna Wong). 한편 엘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남아있다고 강조
- CME FedWatch Tool에서도 11월과 12월의 0.75%p 인상(각각의 확률은 96.3%, 71.5%)을 예상. 연방기금금리는 내년 2월에 최고치(4.75%~5.00%, 이전에는 4.50%~4.75%) 기록하고, 이후 11월에 첫 인하(0.25%p)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
- 주요 국채금리는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상승(2Y: 4.46% 17bp, 10Y: 3.94% 5bp). 다만 주가는 장초반 급락한 이후 다시 급반등하며 상승(S&P500 3,669.9 +2.60%) 마감했고, 달러화 지수는 하락(DXY 112.5 -0.77%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0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비 9천건 증가. 노동공급 부족 여전

- 10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.8만건으로 전주 대비 0.9만건 늘어났으며, 이는 8월말 이후 최대폭 증가. 노동시장은 여전히 공급부족 상태이며, 기업들은 해고에 소극적(Brean Capital의 Conrad DeQuadros)

■ ECB, 주요 정책금리 목표치는 시장 예측보다 낮은 가능성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ECB의 정책금리 측정 모델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2.25%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. 이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3.0% 이상 보다는 낮은 수준

■ 독일 중앙은행 총재, 역내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

- 나겔 총재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종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, 앞으로는 ECB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. 벨기에 중앙은행의 분쉬 총재 역시 매파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현재 0.75%인 ECB의 예금금리가 연말에 2%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

■ 영국 총리, 감세안 수정 고려. 시장 신뢰 회복 등이 목적

- FT에 따르면, 트러스 총리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감세안의 변경을 검토 중. 한편 콰텡 재무장관은 10월 말까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재정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발언

■ 중국 지방정부, 주택 재고수준 낮추기 위해 주택을 매입

- 국영매체 증권시보에 따르면, 그 동안 주택재고를 낮추는데 실패한 지방정부는 직접 주택매입을 개시.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매입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OPEC+의 감산은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침체 초래할 소지

- OPEC+의 대규모 감산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켜 유가의 변동성 증폭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. 특히 유가가 큰 폭 상승하여 이미 경기침체 경계에 이른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1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소매매출, 9월 수입물가, 8월 기업재고,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
- 유로존 8월 무역수지, 독일 9월 도매물가
- 중국 9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의 통화긴축, 글로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 - Reuters

(Worries over global financial stability mount as central banks tighten policy)

- IIF의 베버 회장은 G20 연차총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서두르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. 아울러 9월말 영국발 충격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때 리스크가 얼마나 쉽게 시장에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(Franklin Income Investors의 Ed Perks)
- 골드만삭스의 전세계 금융상황지수는 '09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수준까지 상승. 유로/달러와 달러/엔 스왑시장에서 달러 조달 시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'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. IMF는 동 현상이 달러자금 부족을 시사한다고 평가

■ 영란은행, 신뢰 위기에 놓일 위험 - Financial Times

(The UK credibility crisis risks tainting the Bank of England)

- 10/12일 주요 은행들은 영란은행으로부터 긴급 국채매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개별적으로 받았다고 전언. 연금펀드들도 같은 날 연장 조치를 요구했으나,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채권매입을 예정대로 10/14일에 종료할 것임을 강조
- 베일리 총재의 발언은 도덕적 해이와 수익률곡선 관리 도입 논란을 막기 위함이지만 당국의 입장이 같은 날 상반되게 표명되면서 금융불안이 가중.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간 딜레마로 이미 정책 옵션이 제한적인 가운데 당국의 신뢰성마저 악화될 소지

■ 중국의 성장 둔화,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을 촉진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Slowing Chinese growth is a recipe for global instability)

-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 및 부동산 위기 등을 이유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예측. 이에 중국 경제의 성장에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자본 배분 등을 위한 최신 금융시스템 도입 등 성장에 필요한 경제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
- 특히 중국이 향후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으나 가계소득은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. 이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여타 주요국들이 자국의 성장과 소득 증대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반감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
- 세계 최대 경제국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 부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제한적인 중국은 기존 질서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, 이는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

■ 다수의 헤지펀드,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베팅 - 블룸버그

(Hedge Fund's One Sided Bet on Inflation, Fed Hikes)

- 가파른 임금상승세 지속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으로 '23년 초반까지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이 6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.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정책전환이나 긴축중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
- CFTC에 따르면 다수의 헤지펀드는 미국 국채 선물시장에서 전(全) 만기 순매도 포지션을 설정하며 내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방적으로 베팅. 한편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최종금리(terminal rate)가 4.7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

■ 중국의 부동산 시장, 당국의 효과적 대응 결여 시 심각한 결과 초래 - 블룸버그

(China's Bursting Housing Bubble Will Rock the Economy for Years)

-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응에도 다수의 가계가 주택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유. 이는 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며 신용위험과 주택가격을 낮추고, 투기 방지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
- 그러나 1989년 일본, '07년 미국의 사례는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움을 시사. 또한 중국 가계자산의 40%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을 일으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유도
- 부동산시장 대응이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1% 성장률과 대량실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(Morgan Stanley). 다만 시진핑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

■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임대비의 후행성 등으로 현황 반영이 미흡 - WSJ

(Inflation's Storm From the Shelter)

■ 미국 정부, OPEC+ 감산에 대한 보복은 자국 이익을 해칠 우려 - WSJ

(How Not to Punish the Saudis on Oil Prices)

■ 중국의 최근 고시환율, '19년 환율 방어 조치의 전조 - 블룸버그

(Yuan Fix Pattern Spurs Talk of 2019-Style Currency Strategy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